



| 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|--|
|  금융위원회 | | <h1>보 도 자 료</h1> | | |  금융감독원 | |
| 보도 | | 배포 시부터 즉시 | | 배포 | 2017.6.28(수) 금융위 의결 후 | |
| 책 임 자 |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 진 홍(02-2100-2950) | | | 담 당 자 | 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954) | |
| |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고 일 용(02-3145-8350) | | | | 이 상 헌 팀 장 (02-3145-8356) | |
| |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 신 원(02-3145-8170) | | | | 정 지 훈 팀 장 (02-3145-8190) | |

제 목 : 신한·하나·국민·농협 지주 및 우리은행 등이 D-SIB으로 선정 - 2018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) 선정 결과 -

◆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신한금융, 하나금융, KB금융,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, 신한, 제주, KEB하나, 국민, 농협은행을 선정 ('16년, '17년도와 동일)

1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개요

- 바젤위원회(BCBS)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·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음
 -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(G-SIB)을 선정, 중요도에 따라 1%~2.5%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
 - 더불어,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(D-SIB)을 선정 하고, 해당 은행·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
 -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'16년부터 D-SIB을 선정 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
 - '16~'17년도(적용연도 기준)에는 10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가 동일하게 D-SIB으로 선정, 추가자본('16년 0.25%, '17년 0.5%)을 적립하였음
- * D-SIB(5개사) : 하나지주, 신한지주, KB지주, 농협지주 및 우리은행
D-SIB내 자회사(5개사) : 하나은행, 신한은행, 제주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

<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개요 >

| 구분 | G-SIB | D-SIB |
|--------|---|---|
| 정의 |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(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) |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) |
| 평가주체 | 바젤위원회 | 각국 감독당국 |
| 대상 | 글로벌 대형은행 | 국내 대형은행 |
| 추가적립자본 | 1.0~2.5% | 1%*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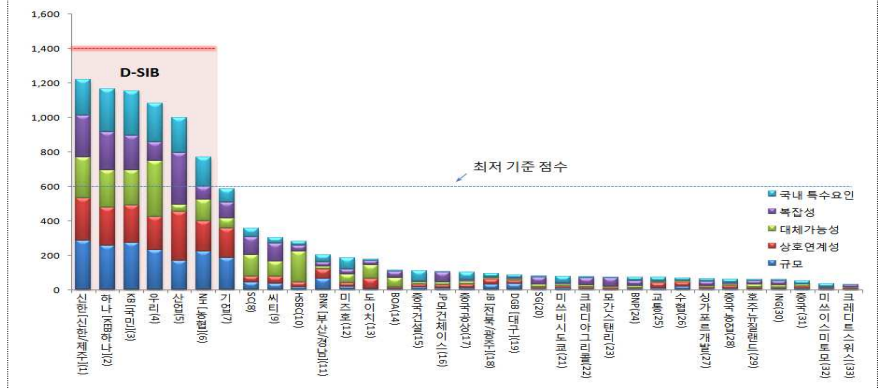
* 추가자본(1%)을 '16년부터 4년간 매년 1/4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 적립 (매년 0.25%)

2 18년 선정 결과

- 금일('17.6.28일) 금융위원회는 '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)를 아래와 같이 선정
 - (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)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
 - (시스템적 중요 은행) 우리은행,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의 자은행인 신한은행, 제주은행, KEB하나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
- '1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동일한 은행·은행지주가 D-SIB으로 선정

<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>

-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, 우리은행, 한국산업은행이 D-SIB 선정 기준을 상회
- 이에 상기 은행지주은행 및 해당 은행지주의 자은행을 D-SIB으로 선정하되
-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-SIB에서 제외



3 향후 계획 및 평가

-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'18년에 0.75%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

< '18년 D-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(%) >

| | 기본 적립비율 | 자본보전 완충자본 ¹⁾ | 경기대응 완충자본 ²⁾ | D-SIB 추가자본 | ⇒ | 적립필요 자본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보통주 | 4.5 | +1.875 | +0.0 | +0.75 | | 7.125 |
| 총자본 | 8.0 | +1.875 | +0.0 | +0.75 | | 10.625 |

- 1)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'19년까지 2.5%의 완충자본 부과
2) 신용평가기에 최대 2.5%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(현재 0%)

- '16년, '17년 D-SIB 선정은 12월에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본 적립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에 선정하였음
- 다만, D-SIB으로 선정된 은행·은행지주 모두가 '18년 최저적립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

< '18년 D-SIB 선정 은행 자본비율 현황('17.3월말, %) >

| | 신한 지주 | 하나 지주 | KB 지주 | 우리 은행 | NH 지주 | 신한 은행 | 제주 은행 | 하나 은행 | 국민 은행 | 농협 은행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보통주자본 | 13.16 | 12.45 | 14.94 | 10.79 | 10.34 | 13.13 | 9.56 | 13.66 | 15.47 | 11.82 |
| 총자본 | 15.03 | 14.71 | 15.75 | 15.07 | 13.37 | 15.78 | 12.59 | 16.29 | 16.71 | 15.05 |

* '17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(잠정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넓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참 고

D-SIB 선정을 위한 시스템적 중요도 산정 방법

1 평가대상

- 은행지주회사, 은행(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)* 및 외은지점 ('16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)을 평가대상에 포함

- * ①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은 평가대상은 아니지만,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-SIB으로 선정시 자은행도 동일한 D-SIB 자본적립
- ② 수출입은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
- ③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등을 감안하여 D-SIB 추가자본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

2 평가부문별 세부지표

- 5개 평가부문의 부문별 평가지표는 동일 가중치로 평가

| 평가 부문 | D-SIB 평가지표 | 가중치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규모(20%) | 총익스포저 | 20% |
| 2. 상호연계성(20%) | 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| 6.7% |
| | 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| 6.7% |
| | 증권 발행규모 | 6.7% |
| 3. 대체가능성(20%) | 원화결제규모 | 6.7% |
| | 외화결제규모 | 6.7% |
| | 보호예수자산 | 6.7% |
| 4. 복잡성(20%) |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| 10% |
| | 당기손익인식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| 10% |
| 5. 국내 특수요인(20%) | 외화부채 | 10% |
| | 가계대출 | 10% |
| 총 합 | 5개 부문 11개 지표 | 100% |

3 평가점수 및 자본비율

- 개별 은행·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평가지표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평가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('시장점유율' 개념)

- 총점이 600bp 초과시 D-SIB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